

#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 조명

동국대·금강대 불교계 인문한국(HK) 연구 공동 국제학술대회  
11월 29~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문한국(HK) 사업을 진행하는 두 종립 대학이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천학)은 11월 29~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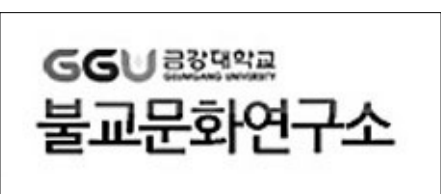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인문한국(HK)사업의 불교 분야 주관연구소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글로벌리더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주제로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0년간 5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를 주제로 2007년부터 10

한·중·일·독일 학자 11명 참가  
일본에 끼친 한국불교 영향 등 발표  
HK사업 연구성과 지속 공유

년간 86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 11명이 새로 발견된 한국불교 사상가들의 자료 및 사상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한국 측에서는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삼론현의’의 성립배경 검토: 신라 삼론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와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동아시아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경흥(景興)의 위상’, 박인석 동국대 교수의 ‘유가론기’에 나타난 혜경(惠景)의 사상경향 분석: 오식신상승지(五識



身相應地)와 의지(意地)의 주석을 중심으로’,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현릉(玄隆)의 유식사상’,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또 하나의 신라승려 <법화경론> 주석서에 대해서’ 등이 발표된다.

해의 학자로는 먼저 후쿠시 지닌(福土 慈稔) 일본 미노부산대(身延山大) 교수의 ‘일본불교에서 해동불교 인용에 관한 제문제-보이지 않는 한국불교의 영향’이 발표된다. 후쿠시 지닌 교수는 한국불교가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계획이다.

이어 노로 세이(野呂 靖) 일본 용곡대(龍谷大) 교수의 ‘고산사계 화엄학에서의 한국불교 수용’을, 미나미 히로노부(南 宏信)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의적(義

寂) 찬술 <무량수경술기>의 인용 경론에 보이는 사상적 특색’을, 오치아이 토시노리(落合 俊典)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당대(唐代) 밀교 흥룡기의 신라승려 초(玄超)의 활약’을, 장원량(張文良) 중국 인민대 교수의 ‘석마가연론’의 찬술지역’을 발표한다.

중국과 일본 측 일본 측 학자들의 발표와 함께 요르그 플라센(Joerg Plassen) 독일 보쿰대(Bochum Uni) 교수의 ‘혜균(慧均)의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한 재고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위치’ 발표도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 이후에는 연찬회에서는 각 사업 추진 내용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041)731-361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진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진출했다. 지난 1997년과 2005년에 이어 2013~2017년까지의 4년 임기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가 19일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3~201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 진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보존&#8228;관리 및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세계유산보

호 분야 발전에 적극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유산보존분야를 포함해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29개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회에 즈음해 문화재청은 신탁기금과는 별도로 6만 달러 규모의 세계유산 기금 기여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 위원회이다. 2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회, ‘고익진 학문세계’ 세미나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삶과 학문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2월 6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빙고 고익진의 학문세계’를 주제로 동계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가

‘고익진의 삶과 학문세계’를 주제로 기초강연하며 이어 이종표 전남대 교수가 ‘초기불교와 아함경 연구’, 김영일 동국대 의과교수가 ‘한국불교사상과 원효연구’, 조은수 서울대 교수가 ‘한국불교전서 편찬과 과제’를 발표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밝은사람들연구소, 제12회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 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소(소장 윤희조)는 12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명장에서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초기불교-붓다의 괴로움과 그 소멸’ △박승찬 가톨릭대 교수의

‘서양철학-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고통의 의미 찾기’ △전중환 경희대 교수의 ‘진화심리학-괴로움은 왜 진화했는가’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삶이 고통받기 이유’ △은혜사 기가암 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불교-괴로움의 뿌리인 번뇌가 곧 보리’ 등이 발표된다. 이날 연찬회 발표논문들은 12월 초 총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지화’ 주제 학술세미나

불교문화 중 하나인 지화(紙花) 장엄에 대한 전승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는 11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이란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지화장엄 전승회장 정명 스님이 불교지화에서 단절되었던 한지 천연염색을 복원하는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양종승 무속박물관장이 ‘불교, 무속, 궁중지화의 비교’를 통해 지화에 대한 종류 등을 비교한다. 또 강현모 한남대 교수가 ‘불교지화의 전승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학술세미나에 이어 12월 11~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염화미소(染花微笑)’를 주제로 지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2011-1877

노덕현 기자

## 동악미술사학회, 제63회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동악미술사학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63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박지선 용인대 교수의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

법’ △정우택 동국대 교수의 ‘군산 동국사 조선전기 쌍림열반도’ △최용천 동국대 교수의 ‘일본소제 통일신라의 사리기’ 등 논문이 발표된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 전국 옛 절터에서 국보급 문화재 대거 발견 ‘눈길’

불교문화재연구·강원고고문화원, 연달아 성과 발표

보성 개흥사지, 고려시대 불상·소탑 출토

원주 법천사지, 고려 최대 규모 사찰 밝혀져

옛 절터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대거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11월 21일 보성 개흥사지 유적 시굴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석축으로 이루어진 동원(東院)·서원(西院)의 여러 동 건물지를 확인했으며 각 건물지에서 용이 조각된 소맷돌이 출토됐다. 불두가 결실된 선정인을 하고 있는 소조 불상과 청동 소탑편, ‘개흥사’ 명 탁새 등이 출토됐다”고 공개했다.

수륙재 거행 및 불경 간행의 기록이 있는 보성 개흥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678년 이전까지 세 차례 중건됐으며 1680년대에 불사가 활발했음이 <청광집>에 전해진다. 개흥사는 수륙재 거행과 함께 다양한 불경과 문종의 족보를 간행했던 사찰로, 계수 스님에 의해 동원석교와 마천석교가 세워지는 등 보성 지역 중심적인 사찰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흥사는 금당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어칸 5m, 협칸 3.5m), 측면 3칸(어칸 5m, 협칸 2.5m)의 동·서 원각 좌우 건물지로 둘러싸인 중정(中庭, 중앙마당)으로 구성돼 있는 대형 사찰이었

다. 중정에서는 석탑 옥개석과 석등 옥개석이 발견됐으며 특히 개흥사 진입로 주변에서 출토된 비석편에는 시주자 이름이 함께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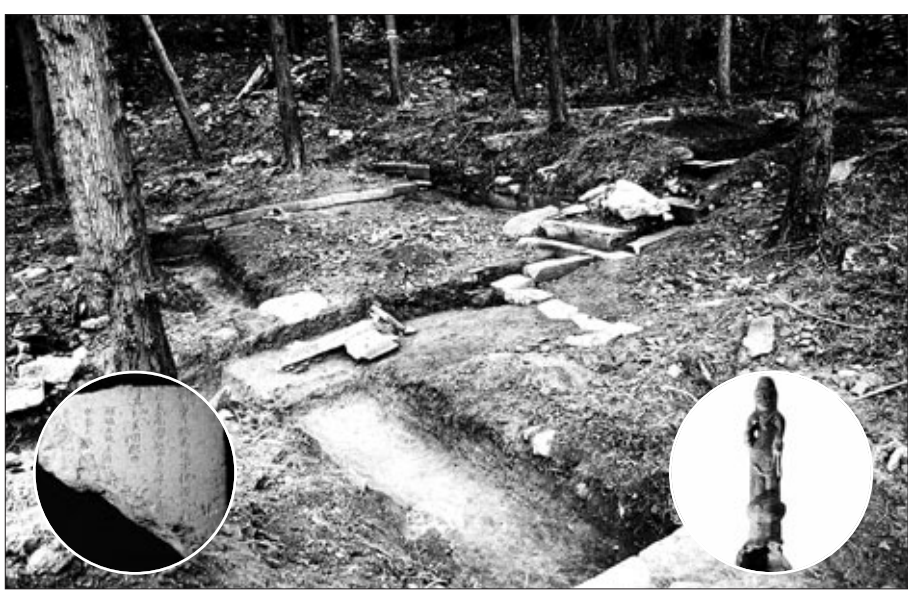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림 스님은 “추녀마루에 용두를 장식한 청동 소탑편과 태선어골문 기와류 또한 발견됐는데 개흥사 창건연대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11월 27일 오후 2시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현장 발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 지역에서는 고려 법상종 중심사찰이었던 원주 법천사의 사지(原州法泉寺址)가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11월 20일 “법천사의 중심사역 정밀발굴조사 결과 고려 중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4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됐다”며 “우리나라 사찰 건물지 유적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건물지 평면 형태를 분석하면 구역별 다원식(多院式)가 람배치에 판아 건물을 연상시키는 좌우에



보성 개흥사 추정 금당지 중정 전경과 진입로에서 출토된 비석편(사진 왼쪽 원). 사진 오른쪽 원 안은 원주 법천사지에서 발견된 금동불입상.

익사(翼舍)를 거느린 대형 건물지도 확인됐다. 그 밖에도 대형 방형우물지와 개방식 배수시설, 석등의 형태적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석, 탑지와 공양보살상의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유구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법천사지 출토유물은 법천사 창건기를 가능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인화문토기편과 당대(唐代) 월주요에서 생산된 옥벽저(玉瓔底) 청자편, 나말여초기의 옥환저(玉環底) 청자, 고식연화문 와당과 소형 금동불입상, 고려중기 법천사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양질의 청자, 송대(宋代) 수입 자기와 송전(宋錢), 법천사 중심건물에 사용되었던 대형의 치미 등이 공개됐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법천사가 고려 왕실의 후원과 지방호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법상종(法相宗)의 중심사찰로써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각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법천사의 창건에서 폐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행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